

Welcome Ms. Hippie

도시의 중심에서
사랑과 자유를 외치다!
돌아온 70년대 히피 트렌드

나는 신데렐라
데뷔 1년 차, 러브콜 1순위!
기억해야 할 14명의 핫 모델

같이 입을까
남성과 여성, 그사이 어딘가
매혹적인 중립 지대 룩

2015 S/S 선택의 기술
발색 샷까지 몽땅 다 보여주는
W 스프링 메이크업 카탈로그

어리다고
놀라지 말아요
나이를 감춘 사기 외모의
패션 피플에게서 털었다!
먹고 바르는 안티에이징법

**BE MY
VALENTINE**

그와 그녀가 모두 사랑하는
초콜릿 그리고 커플링

패션은 계절의 메신저! 더블유 지면 위에 싱그럽게 피어난 2015 S/S 룩

SPRING IS COMING!

FEBRUARY 2015
더블유 한국판
동권 120호
6,000원
www.wkorea.com



몽상가들

비디오 아트의 거장 빌 비올라가
 도전적인 두 명의 배우, 제이크 질렌할과 마고 로비를
 고요한 물 아래로 이끌었다.
 두려움과 고독하게 대면하는 영적이고 몽환적인 체험은
 두 스타로 하여금 삶과 죽음에 관해 사색하게 했다.

PHOTOGRAPHS BY BILL VIOLA

캠핑 셔츠와 감정 맨츠는 모두 Boss 제품.



JAKE GYLLENHAAL

범죄가 들끓는 LA의 밤거리부터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산까지, 제이크 질렌haal이 가지 못할 곳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 어딘가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좋아해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위치한 빌 비올라의 스튜디오에 들어서며 제이크 질렌haal이 말했다. 험령한 카고팬츠와 검은 티셔츠를 입은 그는, 데뷔 초 함께 일한 영화감독 중 한 명이자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스티븐 질렌haal과 동행했다. 학교 연극을 계기로 연기에 입문한 질렌haal은 15세 때 영화 <옥토버 스카이>에서 처음 주연을 맡았으며, 이후 <투모로우> 같은 블록버스터까지 섭렵했다. 하지만 2005년 작인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게이 카우보이 역할을 맡아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이후로는 색다르고 덜 ‘영웅적인’ 캐릭터에 이끌리게 됐다. 신작 <나이트 크롤러>에서 질렌haal은 로스앤젤레스의 범죄 현장 사진을 지역 뉴스에 팔아 돈을 버는 사회 부적응자로 등장한다. 원래 마른 체형이었음에도 역할을 위해 25파운드 이상을 감량했는데 덕분에 단단히 파리를 뜬 뱀처럼 날렵하고 위험해 보인다.

“사실은 제 캐릭터가 기생충 같다고 생각했어요.” 비올라의 전시회 카탈로그와 도록이 잔뜩 쌓여 있는 긴 테이블에 앉아 질렌haal이 말했다. “시나리오상으로는 그렇게 비적 마른 외모가 아니었어요. 제가 덧붙인 아이디어입니다.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기어 나오는 들짐승 같은 사람이거든요. 무척 흥미로웠죠. 25일간 촬영을 했는데, 세트장 밖에서도 그 인물에 빠져 지냈습니다. 밤에 일하면서 제한된 식사량을 지켰기 때문에 역할에 몰입하기가 쉬웠죠. 저는 작품을 할 때마다 감정을 극한까지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불편함이든 흥분이든 사랑이든 증오든 간에요. 뭔가 강렬한 걸 느끼고 싶어요.”

질렌haal은 비올라의 작품에 담긴 감정의 깊이에 매료됐다고 했다. 비올라 역시 극한의 경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비디오 아티스트인 그는 주로 물이나 불을 소재로 삼아 종교적인 상징이 담긴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비올라는 어린 시절 익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물속의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즐겼다고 한다. “계속 물속에 있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구조됐죠.”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물탱크 안에서 촬영하며 완전한 투항의 상태를 재현해왔는데, 유명인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걸어 들어가갈 때 긴장이 되더라고요.” 질렌haal이 유쾌하게 말했다. “물론 아주 흥미로운 긴장감이었습니다.” 열정적인 비올라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따뜻한 물로 채워진 투명 합성수지 소재의 직사각형 탱크에 들어가 누운 배우는, 빛이 서서히 들 때까지 어둠 속에서 숨을 참았다. 그 과정에는 생사의 감정이 깃든다. 하지만 비올라는 자신의 작업에 별

다른 내러티브가 없다고 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질렌haal의 이야기다. “저는 당신의 작품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안에 담긴 구조 때문이에요. 전 당신이 스토리텔러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은 스토리텔러예요.”

<나이트 크롤러>를 마친 뒤, 질렌haal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향한 도전과 좌절을 그린 <에베레스트>와 어느 복서의 이야기를 다룬 <사우스포>에 참여했다. <사우스포>를 준비하며 6개월간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현재 촬영 중인 <데몰리션>이 크랭크업하면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다. 그는 비올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복싱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으로 평생 이 운동을 할 것 같아요.” 질렌haal의 이야기다. “명확한 사실은, 그 순간 완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KO 당한다는 거죠.”

검은 바지와 버튼다운 셔츠로 갈아입은 배우가 세트에 향했다. 비올라의 아내이자 작업 파트너인 키라 페로프가 질렌haal의 발이 향한 물탱크 끝에서 있었다. “제이크는 무척 단호한 성격이에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할걸요? 느긋해 보이지만 자신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아이죠.” 스티븐 질렌haal은 아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알다시피 물속에서 숨을 참고 눈을 뜨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올라의 작품을 보면 인물들의 다양한 감정이 느껴진다. 어떤 이들은 사색하듯 평화롭고, 또 다른 이들은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제야 몇몇 피사체들에게서 봤던 불안을 이해하게 됐어요.” 질렌haal이 나중에 전한 이야기다. “그런 감정이 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단 눈을 뜨고 있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어느덧 공포가 밀려오고 숨이 차기 시작하더군요. 키라가 팔을 움직이거나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지만 그만 제 생각에 사로잡혀버렸어요. 무척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일곱 테이크를 마친 뒤 페로프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질렌haal이 한 번 더 촬영할 것을 요청했다. “물속에 있을 때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예 짜다 죽으려고 했죠.” 그의 고백에는 농담과 진담이 섞여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작품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목욕 가운데 몸을 감싸며 질렌haal이 말했다. “영화를 위해 캐스트를 뜰 때가 연상되더군요. 석고 가면을 뒤덮는 동안 빨대로 숨을 쉬어야 하죠. 늘 ‘그만!’이라고 외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찾곤 하죠. 요즘 전 감정적 경험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어요.”

왼 셔츠는 Hugo, 검정 팬츠는 Boss 제품.



드레스는 Donna Karan New York 제품.



MARGOT ROBBIE

마틴 스코세이지의 작품으로 강렬한 신고식을 치른 마고 로비가 이번에는 아름다운 도둑이 되어 월 스미스와 짝을 이룬다.

“욕조에서 미리 연습까지 했더니깐요.” 빌 비올라의 스튜디오에서 마고 로비가 털어놓은 이야기다. 할리우드의 신성은 지난해 여름 파리 그랑팔레에서 회고전을 열었던 거장의 뮤즈가 된다는 사실에 꽤나 설레는 눈치였다. “정말 흥분돼요. 얼굴이 파랗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아보려고 숨을 참기도 했죠.”

로비는 작년에 마틴 스코세이지의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에서 보여준 연기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부패한 증권 중개인인 조단 벨포트(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트로피 와이프 나오미 역할이었다. 이 배우가 날카로운 면모를 더한 덕분에 나오미는 뻔한 클리셰로 소비되는 대신 아름다우면서도 약삭빠르고 자기 방어적인 캐릭터가 됐다. 아마도 거의 모든 20대 여성 연기가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의 오디션에 지원했을 것이다. 그녀 역시 세계의 장면을 촬영한 테이프를 제출했다. 스코세이지는 이전에도 무명의 흥미로운 여배우들을 캐스팅한 전력이 있다. <디파티드>의 베라 파미가와 <케이프 피어>의 줄리엣 루이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비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스코세이지로부터 테이프가 마음에 든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런던에서 영화 <어바웃 타임> 촬영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서둘러 뉴욕으로 날아갔고, 나름대로 나오미의 이미지에 어울린다는 생각에 청바지와 부츠 차림으로 오디션장을 찾았다. “캐스팅 담당자가 저를 보더니 ‘몸에 달라붙는 드레스와 가장 높은 구두를 사서 갈아입고 오라’고 하더군요.” 로비의 화상이다. “조언에 따라 의상을 교체하고 다시 갔더니 이리저리요, ‘그게 나오미예요.’ 그분을 따라 마티와 레오가 있는 곳으로 가서 대본을 읽기 시작했죠. 하이힐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게 기억나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는 스물네 살 배우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 아카데미 시즌에는 레드 카펫의 스타 대접을 받았으며(“그레이스 켈리처럼 보이려고 했죠.”) 2월에 개봉하는 영화 <포커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월 스미스가 맡은 노련한 사기꾼으로부터 혼욕을 받는 초보 도둑으로 등장한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랑에 빠지는 범죄자들의 이야기에 로비는 신선한 활기를 더한다. “이제 누군가가 차고 있는 시계를 훔칠 수도 있어요.” 로비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주 유용한 기술 같아요.”

반팔 셔츠와 카키색 바지를 입은 63세의 비올라는 젊은 배우를 따뜻하게 맞았다. 새로운 캐릭터를 준비하듯 로비는 아티스트의 작업들, 그러니까 꿈은 부위는 없는지 손전등으로 서로의 몸을 살피는 노인들의 누드나 불붙은 장작

더미에 뒤덮인 남녀의 이미지 등을 미리 예습한 상태였다. 그 외에도 비올라는 물탱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The Dreamers’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피사체들은 만족스러워하거나 불안해하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거나 당황스러워한다. “크게 동요시키는 작업입니다.” 작가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한다. “놀라운 감정의 흐름을 이끌어내지요.” 욕조 모양의 물탱크가 설치된 세트에 안내를 받자 로비는 반색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코스트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을 거의 수영장에서 보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집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었죠. 전 물에서 노는 걸 특히 좋아했어요. 제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아서 엄마가 저녁이 담긴 정반을 수영장 옆에 가져다주시는 정도였죠. 물속에서 밥을 먹곤 했더니깐요.” 열여섯 살에 독립영화에서 처음으로 배역을 따낸 로비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혼자 멜버른으로 향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녀는 빠른 속도로 부상했다. 2년 후에는 러셀 크로부터 크리스 햄스워스까지 술한 호주 출신 스타들이 거쳐간 국민 드라마 <아웃들>에 캐스팅됐을 정도다. “3년 동안 출연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미국식 악센트를 연습했지요.” 계약이 끝난 후에는 로스앤젤레스로 건너가 TV 시리즈 <팬 암>에 참여하게 된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스튜어디스 네 명의 모험을 다룬 작품이었다. 1시즌 이후 드라마는 폐지됐지만 로비를 눈여겨본 사람은 많았다.

“<팬 암>을 촬영하면서 고통에 대해 알게 됐죠.” 비올라의 프로젝트를 위해 로다테의 케이트와 로라 밀리비가 제작한 옅은 녹색의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한 농담이다. “꼭 죄는 보정용 속옷을 입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쪽 눈으로는 속옷을 바라보며 동시에 대본을 읽는 법을 배웠지요. 크리스털과 진주, 시편이 흩뿌려진 자수 레이스 드레스의 주름을 펴며 그녀가 말했다. 마치 인어가 입을 법한 의상이었다.

“정말 근사해요.” 그녀가 탱크 쪽으로 다가오자 비올라가 칭찬을 건넸다. 마침내 로비는 물속에 천천히 몸을 누인다. “고요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물에서 나온 뒤에 들려준 말이다. “물살 아래에 평화롭게 누워 있는 상태인 척 했죠.” 대형 스크린으로 결과물을 확인한 작가의 반응은 이랬다. “마고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튀어나온 세이렌 같아요. 기쁨을 주기도, 파괴하기도 하는 매혹적인 여신 말이지요.” 로비도 미소로 화답을 했다. “마음에 드신다니 기뻐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다면 더욱 행복할 거예요.” ■

스타일리스트 | Patrick Mackie · 글 | Lynn Hirschberg · 에디터 | 정준화
푸른색 드레스는 Rodarte 제품.